

上台를 덮으면서 左右로 展開되어 있다. 이 左右 脇侍佛의 側面에는 蓮華唐草文으로 생각되는 華蔓이 한줄기씩 立像높이와 對等한 部分까지 陽刻되어 있으며 이 塼板의 左右 및 上邊周緣으로 돌아가면서는 蕪頭모양의 簡略한 陽刻圖文이 장식되어 있다. 現在 本尊像 右側에서 脇侍佛과의 사이가 쪼개져서 파손되어 있으며, 同時에 出土된 것으로 보여지는 同一한 塼佛破片의 적은 部分들이 이와함께 入手되어 있다. 또 이 塼佛을 洗滌할 때에 發見한 것이지만 注意해서 보면 佛體와 蓮華座의 各部에 黃色 및 朱色 塗料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塼佛이 往古에 全面的으로 丹彩되었던 자취라고 생각된다.

필라델피아美術館 新收品 狗子圖

崔 淳 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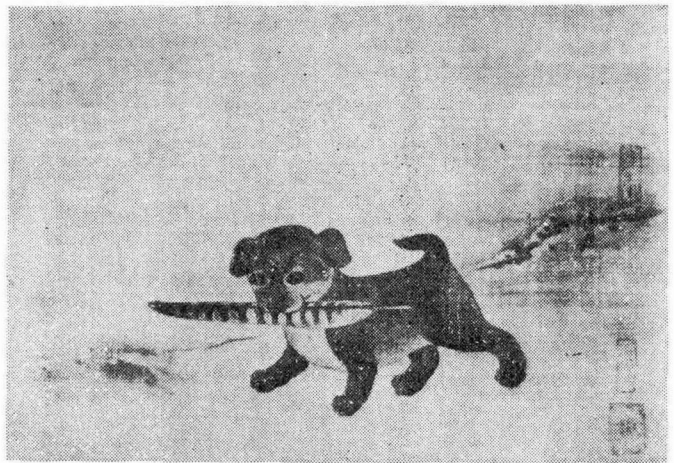
李朝宗室 出身의 畫人으로서 中宗代에 特異한 畫風을 남긴 杜城令 李巖의 作品에 恰似한 李朝繪畫 一點이 近來 美國 필라델피아 美術館에 收藏되어 注意를 끌고 있다. 絹本에 着彩한 小品으로서 稚氣滿滿한 狗兒한 마리가 榻의 깃을 물고 만족해 하는 愛嬌있는 그림에 다음과 같은 印款이 右側에 차례로 적혀 있다.

宣 奉

張 川

海 陽

元來 이 그림은 東京 岸偉一氏가 所藏했었고 日本의 重要美術品으로 指定되었던 完山靜仲筆 猫狗圖(朝鮮古蹟圖譜 卷十四 一九六五面 所載)의 狗兒部分을 그대로 옮긴 그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稀世한 作品이다. 이 款印들이 이 그림의 所藏印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李巖과는 關係가 없는 道장들이며 오히려 日本人 畫僧「永海」와의 關係를 밝혀 볼만한 緣由가 있다고 생각된다. 永海라는 사람은 A·D·一六二〇年頃に 出生한 九州人이라고 傳하며 또 明治七年十二月二十四日



記한 岸氏所藏 猫狗圖 雙幅과 國立博物館所藏 母狗圖 등이 가장 顯저한 작품이고 德壽宮美術館에도 傳 李巖作의 優秀한 翎毛圖가 한 幅 남아 있는 데 過去에 一部 日本人들의 著述과 또는 近者에 國內의 一部人士들이 이들 作品을 日本畫로 看做하려는 主張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問題를 尋常하게 넘겨 보아서는 안될 것 같다. 「完山靜仲」으로 落款한 李巖을 日本畫家라고 보기 비릇한 것은 狩野永納이 그의 著書 本朝畫史에서 莫然하게 室町時代の 畫僧이라고 推測한 후부터였는데 日本사람중에서도 明治年代의 「古畫備考」著者는 李巖의 落款例를 一일히 收錄하면서 이를 朝鮮畫家라고 밝힌 例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李巖의 作品이

七十二歲에 죽은 文晁 門下의 畫家에 永海라는 사람이 또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前者 永海는 號를 張川이라고도 했고 그의 款印中에는 「宣奉」이라는 것을 使用했었음을 傳해주는 記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張川과 張川 그리고 「永海」와 「陽海」의 類似性 등으로 보아 이 印款들이 或如 畫僧 永海의 所藏印이 아니었는가의 與否에 關해서 一考해 볼만한 意義가 없지 않을가 한다. 李巖의 그림은 元來 寡作이었던 모양으로 前

지니는 特異한 個性과 그 設彩法等으로 해서 李朝 그림으로는 異樣한 그림이라고 생각되기 쉬웠던 것이고, 日本사람들 立場에서는 中國의 宋代 毛益이나 또는 錢舜舉 王若水 같은 이들의 畫風에 견주어 볼만할 貫祿 있는 그림으로 여겨졌던 까닭에 부질없는 여러가지 해석을 가지기 쉬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李巖에 관한 비교적 확실한 記錄은 「稗官雜記」의 다음의 記事이다.

「李巖 字靜仲 臨瀛大君璆 曾孫 燕山五年己未生 授杜城令 翎毛雜畫則 有宗室 杜城令其最著者」

또 前記 岸氏 所藏의 猫狗圖는 이미 數世紀前부터 日本에서 保存되어 왔었으며, 國立博物館 母狗圖는 一九一六年 一月二十일에 朝鮮總督府가 二〇〇圓에 사들였고, 德壽宮美術館 翎毛圖는 同年 六月 九일에 日本人 池田虎吉에게서 사들인 것으로서 이번 필라델피아 美術館 新收狗兒圖와 함께 앞으로 그 出處들을 좀더 밝혀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道岬寺 解脫門 上樑文

尹 武 炳

道岬寺는 全南 靈岩郡 西面 道岬里에 位置한다. 解脫門은 그 入口에 서 있는 寺門이다. 몇 해 전에 解體 修理한 無爲寺 極樂殿하고는 한十里 떨어져 있으나 같은 月出山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建物은 所謂 柱心包집 系統에 屬하는 建築이지만 細部 形式에서도 恰似한 點이 많다. 양쪽 모두 國寶로 指定되어 있는데 그 年代도 비슷한 時期에 前後해서 建立된 것으로 推測되어 왔었다.

지난 五月에 解脫門을 修理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上樑文이 發見되었다 한다. 그 發見位置는 지붕 마루도리의 中央部에 있는 도리 밑을 받친 도리받침장하 上面에 墨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成化九年癸巳五月

初七日立柱上樑

大功德主

大王大妃殿下壽萬歲

王大妃殿下壽萬歲

因壽王妃殿下壽萬歲

王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諸年

王師判禪宗任一都大禪

師守眉廉大施主

廉都大木大禪師覺如

嗣大木大禪師義明

行 衆 海明 省明 祖明 海宗

大化主大禪師持寺洪月

書記入選篤資

이 上樑文은 現地에서 工事關係者가 文教部에 報告한 것을 그대로 베껴 놓았는데 誤讀된 글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第十行과 十一行에 「廉」이라 한 것은 兼字 十二行의 「嗣」는 副字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第九行에서 十行에 걸친 「都大禪師」는 判禪宗事가 된 大禪師를 말하며 그 위의 「旺一」 즉 國一은 高麗末 以後로 高僧에 對한 賜號 가운데 흔히 使用되어 있다. 國一 밑에 大禪師라고 繼續하여 法階의 하나처럼 쓰는 境遇가 많다. 第十三行의 「行衆」은 大木 즉 木手 以下の 工事に 關係한 사람들을 가르킨다. 十五行의 「持寺」는 住持 밑에 있는 寺職의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는 住持職을 代行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守眉가 이 절에 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道岬寺의 重創에 對하여서는 現在 境內에 남아 있는 道岬寺 道說·守眉兩大師碑에는 天順 元年 즉 우리나라 世祖三年(一四五七)에 守眉가 信眉하고 같이 重創한 것처럼 傳하고 있다. 信眉와 守眉는 그 當時에 이름난 高僧 들이다. 그러나 世祖實錄에는 二十年(一四六四) 四月乙未